

- 주요 뉴스: 미국 3/4분기 성장률 발표 예정,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발생 여부에 주목
 - 미국 재무장관, 인플레이션은 통제 가능하며 내년 하반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
 - 미국 하원 의장, 민주당은 사회복지 지출 관련하여 합의에 근접
 - 중국 헝다그룹, 선전 지역 등지에서 1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기업실적 호조와 경제성장 지속 기대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6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상승[+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등이 견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와 중국 헝다그룹 우려 완화 등으로 0.5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주가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6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5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0/22일	10/15일	전주말대비			10/22일	10/15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544.9	4,471.4	1.6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3%	1.57%	6bp
	유럽	471.88	469.39	0.53%		독일	-0.11%	-0.17%	6bp
	중국	3,582.6	3,572.4	0.29%	CDS 5y	한국	19bp	20bp	-1bp
	일본	28,805	29,069	-0.91%		중국	46bp	49bp	-3bp
	한국	3,006.2	3,015.1	-0.30%	위험 지표	EMBI+	374	371	3bp
환율	달러지수	93.64	93.94	-0.31%		VIX	15.43	16.30	-5.34%
	유로화	1.1643	1.1601	0.36%		WTI유	83.76	82.28	1.80%
	엔화	113.50	114.22	0.63%	원자재	구리	449.8	473.0	-4.89%
	위안화	6.3850	6.4356	0.79%		금	1,792.7	1,767.6	1.42%
	원화	1,177.1	1,182.4	0.4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/4분기 성장률 발표 예정,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발생 여부에 주목

- 상무부는 10/28일 3/4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계획. Bloomberg에 따르면, 해당 분기 성장률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감소, 공급 병목 등으로 전기비연율 2.8%를 기록하여 전분기(6.7%) 대비 큰 폭 둔화될 것으로 관측
- 금주 FOMC가 예정(11월 2~3일)되어 있어, 이번 발표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. 만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신호가 발생한다면,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설 전망
- 반면 성장 둔화를 초래했던 요인들의 영향이 이미 약화되고 있기에, 시장의 관심이 4/4분기 이후 성장을 회복에 맞춰질 가능성도 존재. Oxford Economics의 Gregory Deco은 2022년에도 견조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인플레이션은 통제 가능하며 내년 하반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

- 옐런 장관은 공급 차질 등이 경제 활동 재개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나, 코로나 19 여파가 감소하면서 관련 문제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. 또한 노동시장 개선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
- 재무부, 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조8000억달러로 전년비 3600억달러 감소.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

■ 미국 하원 의장, 민주당은 사회복지 지출 관련 합의에 근접

- 민주당 펠로시 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. 합의안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했던 규모보다 감소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, 이번 주 표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참언

■ 미국 주요 기업, 비용증가 등을 반영하여 제품가격을 인상할 방침

- P&G는 비용증가 압력이 예상보다 강화되고 있지만, 제품가격을 인상해도 소비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. 식품기업 Nestle와 통신기업 AT&T와 Verizon도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제품 및 서비스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

■ S&P,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에서 '긍정적'으로 상향

- 정부의 경제 개혁 노력이 성장률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. 다만 신용등급은 BBB로 동결
-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Unicredit과 진행 중이던 Monte dei Paschi di Siena의 매각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발표. 또한 EU에 이번 매각과 관련된 협상 기한을 연말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

■ 영국 재무장관, 향후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전망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

- 수낙 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재정정책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언급. 특히 지금까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지적. 재무부는 10/27일 내년도 예산을 발표할 예정

■ 중국 헝다그룹, 선전 지역 등지에서 1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

- 지난 주 미국 달러화 채권 이자 8350만달러를 상환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을 넘긴 이후, 기존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. 한편 향후 사업의 초점을 전기차 부문에 맞추겠다고 발표

■ 중국 국무원,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성격의 부동산세를 시행할 방침

- 아직 구체적인 지역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,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부동산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. 최근까지 부동산세 적용 시 재정 확충에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부동산 침체를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황
- 한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향후 수 일간 코로나 19 감염자 및 발생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. 이는 특히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2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9월 소매매출(전월비): -0.2%, 8월(-0.6%), 예상치(0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25 현지시각 기준)

- 영란은행 테레이로 위원 강연,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
- 미국 10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, 독일 10월 Ifo 경기기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중국 정부의 경제 재균형 추진,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난항 - WSJ

(Covid-19 Sets Back China's Plans to Rebalance Its Economy)

- 장기간 지속된 마·중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 소비 증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.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수요 증가는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
- 아울러 중국은 미국 등과 달리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없었고, 오히려 불확실성 상황을 대비한 저축이 증가. 이에 2019년 8%를 유지했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달 4.4%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지출의 감소세가 확산
-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로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내수 촉진전략은 더욱 절박한 상황. ING의 Iris Pang는 코로나 19가 중국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

■ 독일의 연정,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 - Financial Times

(Germany and Europe face the same challenges in upending fiscal status quo)

- 독일의 균형재정 원칙은 오랫동안 유럽의 재정위기 회복을 저해하고 대내외적으로 투자 부족을 초래.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연정은 장기성장을 위한 민간 및 공공투자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동시에 부채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
- 지금은 연정이 정부 재정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모색하고, 투자 확대를 위해 과도한 수준의 균형재정 원칙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. 독일이 균형재정의 원칙을 조정한다면, 이는 EU의 재정규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

■ 중국의 성장 둔화, 투자자들의 인식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- 블룸버그

(Chinese Economy Risks Deeper Slowdown Than Markets Realize)

■ 미국 바이든 정부,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 파월 의장 재임명 결정이 요구 - WSJ

(Don't Politicize the Fed, Reappoint Chairman Jerome Powell)

■ 일본 기시다 정부, 아베노믹스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계획 수립이 필요 - Financial Times

(Fumio Kishida should keep the best of Abenomic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